

프리미어 리그의 감동, PL 경기를 한층 더 즐기는 법

박기범 BBS 불교방송 영상기술국 라디오기술부 사원

프리미어리그(Premier League)

현재 손흥민, 황희찬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EPL. 흔히 '프리미어리그'라고 부르는데요, 축구 종가인 잉글랜드는 무려 20부 리그까지 운영되고 있어 누구나 축구선수의 꿈을 키워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중 1에서 4부까지를 '리그', 그 외 5부 리그 이하를 '논 리그'로 분류하며 이 중 최상위 프로 축구 리그를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라고 칭합니다.

PL에서 활약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여러 태극 전사들! PL을 즐기기에 전에 기본 정보를 숙지한다면 더욱 경기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세리에A, 분데스리가 등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그들이 정말 많은데, 이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프리미어리그의 팀과 여러 주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알아보까요?

English Premier Lea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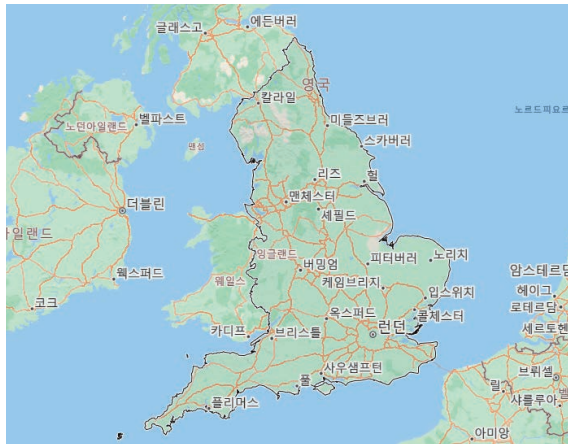
정식 명칭은 'Premier League'이고, 다른 축구 리그와는 달리 축구 종주국으로 국가명을 따로 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편의상 'EPL'을 쓴다고 하네요.

총 20개 팀이 프리미어 리그를 치르게 됩니다. PL은 1992년 2월에 창설된 올해 32주년을 맞이한 리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리그에서 손흥민 선수는 21~22년 시즌에 23골을 몰아치면서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골든부츠, 즉 득점왕을 차지하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최다 우승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PL 개편 이후 총 13회 우승을 했고, 맨체스터 시티는 8회 우승, 리버풀이 PL 개편 이후 1회(2019~2020) 등 여러 수준 높은 팀이 EPL 우승을 위해서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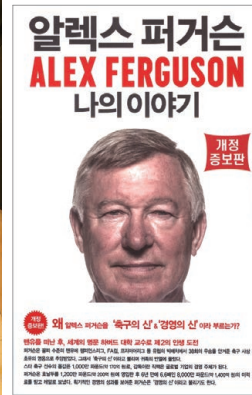
EPL 로고 ©PREMIER LEAGUE 2024



잉글랜드, 영국 ©OpenStreetMap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저지



알렉스 퍼거슨 '나의 이야기', yes24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알렉스 퍼거슨 감독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잉글랜드의 맨체스터주를 연고지로 하며, 홈구장은 약 7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올드 트래퍼드(Old Trafford)입니다. EPL 창설 이후 13회 우승, 통산 잉글랜드 1부 리그 20회 우승으로 유서 깊은 구단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5년에 입단한 박지성 선수로 많이 유명해진 구단이지요?

1992년부터 무려 27년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직을 지켜온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알렉스 퍼거슨 경인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성공 신화를 쓰며 구단을 세계 최고의 구단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퍼거슨 경은 프리미어 리그 13회, UEFA 챔피언스 리그 2회, FA 리그컵 4회, 커뮤니티 실드 10회 우승으로 전무후무(前無後無)한 커리어를 달성했으며,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퍼거슨이 들어 올린 것은 트로피가 아니라 영국의 자존심이라고 말하며 기사 작위를 수여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에서는 알렉스 퍼거슨 경, 'Sir Alex Ferguson'으로 불리게 됩니다.)

“Glory Glory Man United!”

박지성 선수를 영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퍼거슨의 맨유는 3위 아래로 내려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역대 최고의 감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2013년 5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후, 스코틀랜드 출신의 데이비드 모예스에게 감독직을 넘기고 이후 무려 8명의 감독이 바뀌며 10년이 넘는 시

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에릭 텐하흐(Erik ten Hag) 체제로 현재(2024년 10월 기준) 리그 14위로 부진하며 장기 침체기를 겪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과연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리버풀 그리고 노스웨스트 더비

잉글랜드 머지사이드주를 연고지로 하는 리버풀은 PL 개편 이후 1회 우승에 그쳤지만, 개편 이전에는 총 18번을 우승하며 잉글랜드 최고의 팀 중 하나로 손꼽을만하죠. 이 외에도 유럽 전역에서 우열을 가리는

UEFA 챔피언스리그는 총 6회 우승하였으며, UEFA 슈퍼컵 우승 4회, 유로파 리그 우승 3회로 모든 유럽 대항전에서 잉글랜드 내 최다 우승의 영예를 지키고 있습니다.



리버풀 로고, 리버풀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리버풀 하면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필드인데요. 1884년에 개장하여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리버풀의 홈구장입니다. 극성의 홈 팬들이 펼치는 열광적인 응원으로 유명하여, 홈 팀 리버풀에는 든든한 요새이지만, 반대로 원정팀에는 아유와 소음을 선사합니다. 홈 팀에게는 동기를 불어넣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안필드 덕분에 리버풀은 기적과도 같은 홈 명승부를 자주 만드는 팀이 되었습니다.

최근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만들어낸 승리가 유명한데, 2018-19 UEFA 챔피언스 리그 4강 1차전에서 FC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0:3의 패배를 안필드로 불러내 4:0 대역전극으로 뒤집어 넣었던 경기는 '안필드의 기적'으로 유명합니다. 특히나, 2017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프리미어 리그에서 무려 68경기 동안 원정팀에게 단 한 번도 패배를 허용하지 않는 대단한 무패 행진을 달리기도 했죠!

“You’ll Never Walk Alone”

앞서 말씀드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의 경기는 '노스웨스트 더비'라고 불리는데요! 스페인의 엘 클라시코와 함께 세계 축구사에서 손꼽히는 최대 라이벌리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맨체스터 - 리버풀 운하 건설입니다. 19세기 말 리버풀은 주로 무역과 운송 중심의 항만도시였고 맨체스터는 산업 혁명의 핵심도시였습니다. 맨체스터 산업계에서 리버풀 항구의 물류비용이 비싸다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1894년 리버풀을 거치지 않고 맨체스터에서 아일랜드해로 연결되는 맨체스터 운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무역 수입에 의존하던 리버풀 노동자는 재정적 난에 빠지게 되었고, 이에 대한 갈등이 축구로까지 퍼지게 된 것입니다.

역대 전적은 리버풀 72회 승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83회 승리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약간 우위에 있지만 비등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러한 맥락을 알고 축구 경기를 관람하면, 선배님들이 더 즐겁게 경기를 관람하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현재 리버풀은 아르네 슬롯 체제로, 클럽 감독이 23-24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난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면서 리버풀 팬들의 우려를 사기도 했지만 현재 기준으로 프리미어리그 1위를 유지하면서 그러한 걱정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23-24 시즌의 우승컵은 펍의 맨체스터 시티에 내주게 되었지만, 올해 슬롯 감독이 PL 1위를 다시 탈환할 수 있을까요?

토트넘 홋스퍼 그리고 한국인 선수들

잉글랜드 런던 해링게이 구를 연고지로 하는 토트넘 홋스퍼 FC는 한국인 선수를 3명이나 영입한 팀으로도 유명한데요, 이영표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손흥민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헌신해 온 클럽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소속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만 기록한 골이 자그마치 122골. 어시스트는 총 64개, 매치 당 0.4골로 공격수로서 엄청난 스탯을 자랑합니다. 토트넘의 주장으로 리더십을 뽐내는 손흥민. 2018년부터 6년간 국가대표 주장직을 맡고 있으며, 23-24 시즌부터는 토트넘에서도 주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리버풀 저지



안필드 홈구장, 리버풀 공식 인스타그램





토트넘 손흥민 저지



양민혁 선수, 토트넘 홋스퍼 공식 인스타그램

“Nice One Sonny, Nice One Son”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골을 넣게 되면, 들려오는 응원가로 유명하죠?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토트넘은 06년 출생의 ‘양민혁 선수’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5년부터 토트넘 소속으로 뛰게 될 예정이며, 현재는 강원FC 소속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K리그 이달의 선수상 1회, 영플레이어상 4회 수상 등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양민혁 선수. PL에서 잘 적응하여 대한민국 축구선수로서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끝으로 필자의 풋살동호회에서 뛰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글을 마칩니다. 교대근무 특성상 수면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자연스레 늦은 밤에 축구관람을 하게 됩니다. EPL과 축구 팬으로서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소개 글을 작성하게 되며,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오늘 치맥(치킨+맥주)과 함께 축구관람 어떠신가요? :) 🍗🍺



펍에서 축구 관람하는 모습



맥주 마시면서



필자의 풋살 경기 중